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 다원적 절충주의 분석 연구

배 정 민* · 김 영 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The Analytical Study on the Plural Eclecticism a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rtwork of Vivienne Westwood

Jungmin Bae* and Young-Sam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06. 6. 12. 접수 : 2006. 8. 7.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ious cases of plural eclecticism through the works of Vivienne Westwood, who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innovative and eclectic English fashion out to the world as well as to review plurality and its phenomena since the 20th century more systematically. In terms of research methodology, the phenomena of plural eclecticism were examined from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whereas bibliographic research and case study were performed for the phenomena of eclecticism in fashion. From the perspective of plural eclecticism, the results from analyzing the works of Vivienne Westwood by the divisions of temporal eclecticism, spatial eclecticism, and contingent eclecticism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First, Vivienne Westwood emphasized historicism tendency of temporal eclecticism. Her efforts to try to modernize history went beyond ages and social classes including men's clothing, prostitutes' costumes, craft items, and dresses for royal family. Second, her spatial eclecticism was reflected on the first collection themes inspired by the American Indians or borrowed from the names of Voodoo in the Tropics. Finally, infra-fashion as an expression of contingent eclecticism of Vivienne Westwood's works can be interpreted as plural eclecticism which shows contingent eclecticism and historic eclecticism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imed at proving preceding implications concerning recent plural eclectic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s of Vivienne Westwood who tried a radical design of plural eclecticism in an effort to modernize the tradition of England in the circumstances where a number of trends and styles exist together, with their own uniqueness and values.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 특성), british fashion(영국 패션), plural eclecticism(다원적 절충주의), Vivienne Westwood(비비안 웨스트우드).

I. 서 론

현대는 합리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 개방성, 다양성,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는 다른 시대, 다른

* 교신저자 E-mail : diana79@paran.com

문화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여 종합화하는 Post-modernism 양식이 지배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복식의 변화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다원화됨에 따라서 복식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여 공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최근의 문화적 정체성은 그 문화의 차별성, 다양성, 다원성에 대하여 민감하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절충주의적 형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절충주의는 20세기 후반의 패션에서 전혀 조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친화되거나 거부감 없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문화적 다원주의와 이 시대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한 흐름으로서 다시 급부상하여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절충주의 현상에 대한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패션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는 연구적 가치가 높다고 사려되며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절충주의를 충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패션은 왕실, 귀족의 고급 패션과 일반 대중의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 두 가지 상반된 패션을 서로 절충하고 있는 영국 패션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첨단이 공존하고 있으며 엄격한 전통성과 파괴적인 패션이 존재하는 영국의 캐워크(Catwalk)는 Post-modernism의 절충적인 특징과 부합하여 Collection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Vivienne Westwood는 전통성을 바탕으로 과거의 현재적 해석, 전통성, 도발성, 선정성, 과장성, 유머성을 함축하고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여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Vivienne Westwood는 1990년대에 들어 혁신적이며 절충주의적인 영국 패션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주자이며, 패션계에 폭넓은 문화와 스타일을 수용시키는데 기여한 디자이너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원적 절충주의를 시대별로 특징적으로 표현한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통해 다원적 절충주의의 선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20세기 이후 다원적 절충주의 현상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변천되어 왔으며 어떠한 특징들이

는지를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먼저 다원주의와 절충주의의 개념적인 이해와 더불어 복식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다원적 절충주의를 표현한 영국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Vivienne Westwood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그녀의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의적인 경향을 시간적 절충주의, 공간적 절충주의, 상황적 절충주의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원적 절충주의 현상을 사회·문화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 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또한 Vivienne Westwood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Post-modernism에 근거하여 고찰하였으며 이에 복식 디자인의 조형적 요소도 함께 분석하였다. 양식 및 방법상에 있어서의 다원성을 강조하면서 지역과 역사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양식들을 혼합하는 Vivienne Westwood의 절충주의적 경향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녀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문헌자료와 패션 잡지의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사함에 있어서 시대적 범위는 그녀가 Collection에 작품을 발표하면서부터 04' S/S Collection까지로 제한하며, 런던 Collection, 파리 Haute Couture Collection, Prêt-a Porter Collection 등의 패션쇼를 중심으로 발표한 스타일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원적 절충주의의 일반적 고찰

일반적인 절충주의는 고대 철학에서부터 종종 상용화 되어온 개념이지만, Post-modernism 사회의 다원적인 특성과 함께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Post-Modernism은 모더니즘적 철학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철학적 노력들을 지칭하며 그 외의 측면에서는 새롭게 대두되는 문화 예술 사조 혹은 문화 양식(Style)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쓰인다¹⁾. Post-modernism 문화 양식에서는 대중 문화와 고급

1) 최혜경,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47.

문화간의 경계, 장르간의 경계가 와해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Post-modernism은 장르, 형식 간의 절충주의나 '다원주의(Pluralism)'를 지향하고 있다. 다원주의는 다수의 양식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며 일원론보다는 다원론을, 절대성보다는 상대성을, 독단보다는 관용에 더 가치를 두는 Post-modernism은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화 현상을 보여주었다. 즉, 다원주의는 사회가 권력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기보다 집단의 경쟁·갈등·협력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이론이며, 가치의 다양성이 허용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문화 전반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공존, 동양과 서양의 양식, 여성성과 남성성, 정숙성과 비정숙성 등 양면 가치에서 비롯되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개의 양극적 요소들이 조합, 조화되어 표현되어지며, 이것은 복식에 시대 정신·문화 정신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반복·변화됨으로써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절충'이란 서로 다른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절충주의(Electicism)'는 범주와 장르를 혼합하는 양식으로서 Post-modernism 사회 이전에도 종종 상용되어 왔던 용어였으나, 절충주의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 것은 Post-modernism 사회 하에서였다. 절충주의는 A+B=C로 그 성격이나 특징이 변모되는 것과, A+B=A, B로 혼합된 것들이 단순

히 섞여 나타나는 것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Post-modernism에서는 이 두 가지 양상 자체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ost-modernism 사회 안에서 후자보다는 전자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가 재생산된다. 즉, 외적으로는 A+B=A, B의 양상을 보이거나 그 내용이나 이미지는 A+B=C라는 공식이 적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²⁾.

오늘날은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고 시간, 공간, 문화 등이 무너진 새로운 사회이며 다양한 민족적 요소, 정신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수용하고 절충하여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20세기 이후의 절충주의는 Post-modernism이 바탕이 된 다원적 절충주의로 해석되며, 다양한 스타일간의 해체·혼합·절충적 양식이 다원성에 의해 한 단계 발전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이러한 다원적 절충주의는 A+B=C로 그 의미가 재생산된 양식과 A+B=A, B로 단순히 섞여 나타나는 양식 모두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또 다른 절충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면서 서로 절충되어져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내기도 하며 시·공간을 조율하기도 하며 경계를 해체하거나 모방하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이루어내기도 한다.

2. 복식에서 보여지는 다원적 절충주의
복식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표 1〉 20세기 이후 절충주의의 특성

특성	절충주의 내용	
창조·독창성	A+B=C의 의미를 가지므로서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성향을 가짐	
다양성	서로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고 이행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	
초월성	시간적 초월	시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절충됨
	공간적 초월	공간 개념의 붕괴로 각국의 고유한 민족성이 절충됨
	상황적 초월	T.P.O의 경계가 무너지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절충됨
모방성	여러 시대와 민족의 모티브를 본뜨거나 흉내냄	
해체성	경계의 해체적 성격, 기존의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새로운 경계의 절충을 이끔	

2) 양희영,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양식-Andy Warhol Look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 94.

며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복식의 변화 요인 또한 알 수 있다. 19세기는 과거 양식의 최후적 단계이자 다음 시대에 대한 출발 준비기였으며, 다양한 양식의 혼합과 진정한 시대 양식의 부재 속에서 이미 선행된 각종 양식을 취합, 선택, 절충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절충주의가 이 시대의 지배적인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19세기의 절충주의 복식은 다양한 역사성이 존재했던 역사적 절충주의라고 볼 수 있다. Marilyn J. Horn, Lois M. Gurel³⁾은 19세기 역사적 절충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복식은 구성요소들이 조화롭지 않고 역사적 스타일이 혼재했던 Romantic·Crinoline·Bustle Style을 포함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복식이라고 하였다.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통적 아이디어와 혁신 사이의 되풀이 되는 갈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세기의 복식은 과거를 회상시키려는 낭만적인 색채와 재질, 과거를 풍미했던 특정 실루엣과 스타일, 액세서리 등을 그 시대의 발전된 기술과 함께 결합되어 역사적 절충주의 복식을 출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을 근거로 변화와 발전하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절충주의 복식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는 다원적 절충주의로 풀이될 수 있으며, Post-modernism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다원적 절충주의는 '크로스 오버(Crossover)'⁴⁾, '하이

브리드(Hybrid)'⁵⁾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절충주의로 요약되기도 하고, 절충주의적 패션은 다양한 양식으로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다양성의 세계를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20세기의 복식에서 보여지는 다원적 절충주의를 시간적 절충·공간적 절충·상황적 절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9세기 복식에서 보여지는 역사적 절충주의의 예로 <그림 1>은 16세기 Renaissance 시대의 Ruff Collar와 Baroque시대의 Leg of Mutton Sleeve가 함께 보여진다. <그림 2>에서 보여지는 Crinoline style의 복식은 깊게 파인 Décolleté와 과도하게 조인 허리, 그리고 Hanging Sleeve가 엮보이는 의상이다. 또한 20세기의



<그림 1> 19세기 복식. <그림 2> 19세기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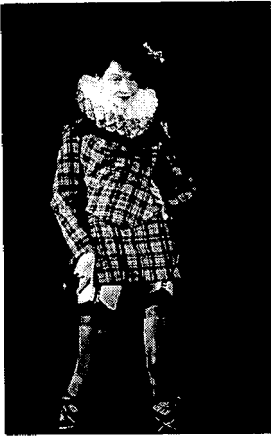
<표 2> 19세기와 20세기 복식에서 보여지는 절충주의

		19세기 복식		20세기 복식	
형성 요인		과거 회상의 낭만주의		Post-modernism	
경향		역사적 절충주의		다원적 절충주의	
구분	특징	Romantic Style Crinoline Style Bustle Style	다양한 양식의 혼합과 진정한 시대 양식의 부재 역사적 스타일의 혼재 과거의 복식이 그 시대의 발전된 기술과 결합	시간적 절충 공간적 절충 상황적 절충	주류스타일과 비주류스타일의 혼재·절충 Crossover, Fusion, Hybrid의 의미 포괄 다양한 문화의 혼재

3) Laver James, *Historie De La Mode Et du Costume*, (London: Thames and Hudson, 1993), p. 109.

4) 크로스오버는 음악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영역과 장르의 경계를 없애고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나 장르를 만들어내는 신문화 현상이다.

5) 하이브리드는 동·식물의 잡종, 혼성물 등을 뜻하며, 서로 다른 것끼리의 만남을 통해 혼성·혼합·절충되어 전혀 새로운 것으로 탄생되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Vivienne Westwood, '97 A/W.



〈그림 4〉 John Galiano, '74 S/S.

다원적 절충주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림 3〉은 시간의 개념이 절충됨에 따라 보여진 의상으로 Renaissance 시대의 Ruff Collar가 디자인의 요소로 작용한 시간적 절충주의이다. 공격 공간과 사적 공간의 절충으로 나타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의 대표적인 소재로 Corset 디자인을 응용한 〈그림 4〉는 Fantange 헤어장식으로 18세기 Rococo 시대의 느낌까지 살린 작품으로 상황적 절충과 시간적 절충이 함께 보여지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III. Vivienne Westwood 작품 경향과 미적 특성

1. Vivienne Westwood의 작품 경향

Vivienne Westwood는 트랜치 코트의 대명사인 버버리와 미니 스커트를 최초로 유행시킨 메리 퀀트(Mary Quant) 이래로 가장 유명한 영국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그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럴(Lewis Carroll)처럼 순수함과 사악함, 숭고함과 저속함이 뒤섞여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 냈고 과거를 들추어내 현대화 할 수 있는 천재성, 자유분방한 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이

세 해준 밑거름이 되었다. 1965년 Vivienne Westwood는 말콤 맥라렌(Malcolm McLaren)을 만나면서 패션 디자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971년 '락을 이용하라(Let it Rock)'라는 이름의 빈티지한 옷들과 Vivienne Westwood가 직접 만든 옷을 파는 가게를 런던의 킹스로드에 오픈하면서 당시 영국에서 유행한 Rock과 Punk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 Vivienne Westwood의 의상은 Punk Look과 Malcolm McLaren의 그룹인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한 스타일이 주종을 이루었다. Malcolm McLaren과의 첫 번째 Catwalk '해적(Piret)'을 발표 후 1984년 '마녀들(Witches)' Collection까지 함께 하였으며, 1984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매니징 디렉터인 카를로 디마리오(Carly D'Amario)를 만나 현재까지 Collection을 진행해 오고 있다.

Vivienne Westwood는 1970년대 펑크와 록 음악의 시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와 관련된 주제를 자신의 디자인에 반영하였으며, Tweed와 Tartan Check⁶⁾ 등 전통적인 영국 직물과 Corset이나 옛 드레스와 과거에 사용되던 재료 등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미래를 창조해 내는 방법'이라는 패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18세기 이전의 살롱 문화, 18세기의 진귀한 가구들과 그림들, 그리고 장식품들은 Vivienne Westwood의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 특히 Crinoline이나 Bustle, Ruffle, Train 등을 부활시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대를 꿈꾸는 도전적인 금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Vivienne Westwood의 창조적 파괴 행위의 근본에는 영국이라는 배경이 있다. 권자영⁷⁾의 연구에서 전반적인 현대의 영국 패션은 전통 문화와 청소년 하위 문화,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 사이의 조합으로 질서 정연하지 않지만 어느 한 쪽에 부합되거나 흡수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논하였다. 그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로우며 어우러져 움직이고 서로 절충하는 경향을 보이며 디자이너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6) 본래는 타탄 플레드(Tartan Plaid)라고 하는데 보통은 타탄 체크라고 불린다. 여러 색의 줄무늬를 직각으로 교차시켜 절합한 격자무늬. 각각의 무늬는 스코틀랜드의 클랜(Clan, 씨족)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색수가 풍부하고 격자는 크며 세로, 가로, 대각의 비는 동일하다.

7) 권자영,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84.

영국의 특징적인 이미지는 버버리와 신사복, 비틀즈, 핑크 등으로 대표된다. 이는 전통적인 귀족 문화와 파격적인 돌발성이 혼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국 패션의 특징은 전통성과 엄격함이 존재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패션 현상을 들 수 있다.

2. Vivienne Westwood 작품의 미적 특성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아가일 체크(Argyll Check)⁸⁾와 타탄 체크(Tartan Check), 유니언 잭(Union Jack), 영국 왕실 상징인 로얄 블루(Royal Blue)를 사용하였고, 영국 테일러링 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국의 고급 문화와 하위 문화를 적절히 버무린 ‘영국 다움’을 잃지 않는 완벽한 비대칭을 선보였다. 이는 전통을 현대화하는 질층주의적인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Vivienne Westwood의 작품에 나타난 복식의 미 중 외형적인 미인 의복을 구성하는 스타일, 색채, 소재, 문양 등의 외적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스타일

일반적인 Vivienne Westwood의 스타일은 Corset 형태의 Bodice와 풍성한 주름이 있는 스커트의 팻트 앤 플레어(Fit & Flare) Silhouette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적이고 에로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풍성한 가슴과 갈록한 허리, 둥근 어깨, 풍만한 엉덩이를 강조하였다. 매니쉬한 재킷에 있어서도 몸에 꼭 맞는 살루엣이 공통적으로 보여지며 둥글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어깨와 몸에 꼭 맞는 허리선에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형성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몸에 꼭 맞는 마이크로 미니 스커트에 레이스 소재의 속옷과 Garter Belt를 착용한 매치는 도발적인 성적 매력과 퇴폐성을 동시에 전해주고 있다. 가슴을 중심으로 모으고 위로 한껏 올려 가슴선이 반쯤 드러나 보이는 Bodice와 주름진 스커트, S-Silhouette 드레스, 작은 모자, 부채 등의 매치는 Vivienne Westwood만의 스타일로 자리잡았다.

Rococo 시대의 귀족풍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의상들은 Ruff Collar와 Bodice의 형태, 전체적인 느낌만을 차용하였을 뿐 고급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화류계의

여성들의 모드를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 Vivienne Westwood는 Wit와 Irony를 추가하여 거침없는 스타일과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이미지, 파격적인 발상을 선보였다.

2) 색 채

Vivienne Westwood의 Collection은 활기참, 화려함, 명쾌함이 돋보이는데 이는 톤 온 톤의 조화 배색보다는 대조 배색이나 엑센트 컬러 코디네이션을 즐겨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빨강, 자주, 주황, 터키그린 등의 제한된 컬러들을 사용하여 깊고 풍부함을 나타내었으며 명도와 채도의 변화와 배치되는 컬러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는 핑크를 대표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모티브로 사용하는 Union Jack과 Tartan Check의 기본 색상인 로얄 블루와 빨강, 흰색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영국의 전통과 자존심을 기본 바탕에 두고 새로운 조형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온통 빨강 일색이었던 Collection이 있었는데 이번 로얄 블루를 기본으로 하여 의상뿐 아니라 헤어와 메이크업까지도 온통 파랑 일색이었던 Collection도 있었다. 그러나 99년 이후의 Collection에는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은 컬러와 흰색, 검정, 회색 등을 사용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색상환의 반대편에 있는 보색 배색을 즐겨 사용함으로써 강렬하고 도발적인 스타일을 더욱 강조해 주었으며 엑센트 컬러의 적절한 사용으로 전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여 통일감을 느끼게 하였다.

3) 소 재

디자이너들은 독특한 소재 개발을 위해 의상에서 생각지 못한 소재들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주의 의상을 예견하기도 한다. 그러나 Vivienne Westwood의 작품에 나타난 소재는 색상과 무늬가 현란하다는 것 외에는 아주 평범한 소재가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영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영국의 소재 산업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체크와 스트라이프의 울 소재이다. 매 Collection마다 강조되어 왔던 Tartan Check는 캐주

8) 아가일 체크는 여러 가지 색상의 마름모꼴격자로 마름모꼴 위에 가는 오버 체크가 들어가 있다. 색상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고 니트에도 자주 사용된다. 스코틀랜드 아가일 지방의 캠베르가의 타탄 체크에서 유래했다.

얼하고 기능적인 패션에만 사용되어 고전적 이미지와 전통적인 이미지로 인지되었다. 그러나 Vivienne Westwood는 타탄 체크, 글렌 체크(Glan Check), 하운드투스 체크(Hound's Tooth Check), 킴엄(Gingham) 등 기본적인 체크 패턴에 색상과 문양의 변화에 따른 다양함을 추구하였다. 원사의 굵기와 색상, 직조된 기술과 가공 방식에 따른 다양한 소재를 배치하였다. 또한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해온 양모제품인 서지(Sergy), 개버딘(Gabardine), 헤링본(Herringbone), 플란넬(Flannel) 등을 즐겨 사용하여 전통적인 남성복에 사용하였던 소재와 극도의 여성스럽고 화려한 소재를 배치하여 영국의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여왔다.

그녀의 Collection 역시 여성적인 스타일에 적합한 벨벳(Velveteen)과 새틴(Satin), 실크(Silk), 쉬폰(Chiffon), 타프타(Taffeta)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소재는 역사적 절충적인 스타일인 Rococo 시대의 웅장함과 섬세함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이었으며, 부드러운 소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드레이프는 더욱 에로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Vivienne Westwood는 영국의 전통적인 소재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으며 일상적이고 평범한 소재를 다양한 소재와 배치하여 그녀만의 Collection을 완성해 왔다.

4) 문 양

Vivienne Westwood의 Collection에 나타난 문양은 기본적으로 체크, 스트라이프 패턴을 바탕으로 플로럴 프린트와 아르데코 문양 등을 사용하였다. 고대 성화를 그대로 프린트한 Corset을 주 무대로 한 Collection 등 매 Collection마다 컨셉에 맞게 다양한 문양이 개발되고 발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체크와 스트라이프, 플로럴 프린트 등을 위주로 전개되었다.

Vivienne Westwood는 영국 디자이너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인 영국의 전통적인 문양인 Tatan Check, Hound's Tooth Check 등으로 과격적인 디테일과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다양한 스트라이프를 서로 배치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문양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귀족적이고 독특한 백합과 나리 꽃 프린트는 고전적인 복식 스타일과 어울리는 문양으로 고급스러

움과 고혹적인 매력은 나타내어 에로틱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다. Rococo나 Baroque 복식에 많이 사용되었던 고전적인 문양은 금사와 은사로 짜여진 것이 많아 화려하고 고봉스러움을 연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화려하고 원색적인 문양보다 다양한 느낌의 핸드 프린트가 보여졌는데 동양적인 붓 터치를 살린 프린트나 자유로운 그래픽티 프린트, 비대칭적인 문양으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IV. Vivienne Westwood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원적 절충주의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절충주의적 패션 디자인의 경향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을 시간적 절충주의, 공간적 절충주의, 상황적 절충주의로 나누어 분류·고찰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선행 연구와 최근 Collection에서 보여지는 절충주의 사례를 분석한 후 다원적 절충주의의 특성을 기준으로 나누어졌으며 창조성과 독창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즉 다원적 절충주의를 역사성과 초월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적 절충주의, 초월성과 다양성, 모방성의 특징을 다양한 문화의 혼재로 표현하는 공간적 절충주의, 초월성과 상황적 해체를 보여주는 상황적 절충주의로 구분하였다.

1. 시간적 절충주의: **Historicism**

Post-modernism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창조는 더 이상 없다는 사고 아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양식을 모방하는 경향이 복고풍 디자인을 유행하게 하였다. 패션에 있어서 Post-modernism의 절충주의적 성격은 모더니즘의 조형의 순수성을 거부하고 Classicism과 Modernism, Avant-Garde와 Nostalgia의 대립적 요소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 역사적 절충주의에서 보여지는 '과거로의 회귀'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현대인의 정서와 시대상에 부합된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⁹⁾. 따라서, 새로운 창조란 과거와

9) 나현신,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19C와 20C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 77.

단절할 수 없는 것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 현대인들은 마음의 풍요와 정신 세계에 대한 향수로 낭만적인 과거의 요소를 찾아내어, 역사 속에 폐기된 스타일들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는 세기말의 영향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역사주의적인 패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요소를 조화롭게 절충하여 시간적 절충주의라는 새로운 양식으로 정립되었다. 현대 패션에 표현되고 있는 복고는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재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역사적 내용의 차용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지의 차용을 특징으로 하여 현대 패션의 역사주의의 외상은 고대 복식에서부터 중세, Renaissance, Baroque, Rococo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기를 의상의 테마로 삼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1세기 전반기 패션에 있어서 시간적 절충주의의 경향은 과거 복고와 원시 회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초현대적 세련미와 클래식적 전통성이 서로 절충되어 자유주의적 개성미와 절제된 복고풍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Vivienne Westwood는 주로 역사적 절충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18세기 Rococo로부터 모드의 표현을 화류계 여자로부터 가져온 것이었으며 여기에 Wit와 Irony를 추가하여 새로움을 창조해냈다. 80년대 이후 Mini-Crini Collection을 통해 Crinoline 시대의 과도하게 퍼진 스커트를 과격적으로 짧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방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역사의 다양한 부분에서 절충을 시도하였다. 때로는 남성복에서 또 때로는 화류계의 여자로부터 또한 공예품이나 왕실의 드레스에서까지 시간을 넘나들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을 넘나들면 역사의 현대화를 시도한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인 남성복에서 보여지는 Codpiece나 Justaucorps에서도 절충이 이루어져서 성의 절충도 엿볼 수 있다.

〈그림 5〉는 그녀의 시간적 절충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인 Mini-Crini이다. 상의는 Corset을 매치시켜 전통적인 요소와 짧은 Crinoline의 과격적인 요소를 한번에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과장된 Bustle Dress를 새롭게 재해석한 Mini-Bustle 역시 짧



〈그림 5〉 '87 A/W. Harris Tweed. 〈그림 6〉 '94 A/W. On liberty.



〈그림 7〉 '96 S/S. Vive La Cocotte. 〈그림 8〉 '95 A/W. Les Femmes.

은 스커트와 함께 다양하게 선보였다(그림 6). 특히 그녀가 관심을 보인 시대는 Rococo 시대로 Rococo Dress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재창조한 Corset과 함께 매치시키고 Watteau gown을 디자인에 접목하여 그녀만의 독특한 Rococo를 재현하였다(그림 7, 8).

2. 공간적 절충주의: Ethnic

20세기 초 주류 문화 중심에서 지역적 다원주의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형성되었다. 서구 사회는 동양

정신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동양 문화에 대한 새로운 미학의 발견과 탐색, 고전적인 아름다움의 동경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공간적 절충주의는 장식적인 요소와 절제된 미를 재해석하여 문화적인 이질감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90년대 이후 동방 모드가 유행이 되면서 중국의 차이니즈 드레스인 치파우(Qipau), 일본의 기모노(Kimono)와 오비(Obee), 인도의 사리(Sari)와 문신 형태의 헤나(Henna), 베트남의 아오자이(Aojai) 풍의 디자인들이 현대 패션과 접목되고 있다. 또한 최근 동구권 중심의 의상과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난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풍의 에스닉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러한 Ethnic Look은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풍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상, 습관, 피부색 등이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 실크, 동남아시아의 민속적 면직물 등의 소재, 정열적인 색의 사용과 동양적인 무늬로는 당초문(唐椒紋), 화문(花紋), 용문(龍紋) 등이 동양적 분위기를 강하게 해준다. 이러한 에스닉 패션은 서양 패션의 인위적이고 건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 복식의 미와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로 해석된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모호성과 무경계적인 절충주의로 인해 하나의 민족이나 국가의 복식이 아니라 에스닉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여러 나라가 혼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전혀 조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각 지역별 특성들이 거부감 없이 혼합되어 또 하나의 새로운 모드를 창출한 것이다. 즉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형태의 서구 복식과 순수하고 장식성이 강한 민속 복식의 혼합은 지역간의 거리차를 뛰어넘는 공간적 형태의 절충주의라고 할 수 있다.

Vivienne Westwood가 주로 선택하는 Ethnic은 세계의 문화를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더욱 강조하는 Heritage Fashion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양에서는 Punk의 시기 이후부터 체크와 스트라이프를 다양한 방식으로 혼합하며 색채의 조화와 함께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경향이 후에 Avant-Garde적이며 파격적인 John Galliano, Kahl Lagerfeld를 성장하게 하였고, 더욱 다원화된 절충주의를 영국에서 탄생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Vivienne Westwood는 그녀만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가죽이나 퍼를 사용하였고, 체크 패턴에서 영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였다(그림 9, 10). '99 S/S Collection에서는 다른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오비를 새롭게 디자인하기도 하였다(그림 11).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경향인 Ethnic 분위기로 인해 최근 Collection에서는 Ethnic의 요소가 엿보이기도 한다(그림 12).

3. 상황적 절충주의: **Infra Fashion**

과학의 발전에 따라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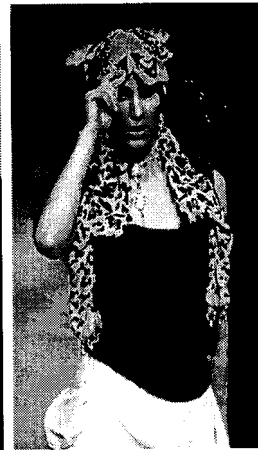
〈그림 9〉 '93 S/S. Grand Hotel.



〈그림 10〉 '95 A/W. Vive La Cocotte.



〈그림 11〉 '99 S/S. Red Label.



〈그림 12〉 '01 A/W. Wild Beauty.

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낮 시간과 저녁 시간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데이 웨어(Day-wear)와 이브닝 웨어(Evening-wear)의 뚜렷한 구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즉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일상복/외출복/사교복/운동복으로 나누어진 뚜렷한 구분이 더 이상의 의미를 상실하는 '상황적 절충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왜해로 나타난 인프라 패션(Infra Fashion)을 들 수 있다. Infra Fashion은 라네리 룩(Lingerie Look)의 부상으로 속옷이나 Lingerie가 겉옷의 디자인적 요소로 부분도 입되거나 이미지의 효과로서 패션에 나타났다. 이러한 속옷의 겉옷화는 Garter Belt, Corset, Petticoat 등이 겉옷으로 변형되어 패션 영역간의 Crossover가 시도된 것으로, 73년 Chantal Thomass가 캐미솔 룩(Camisole Look)을 발표한 이래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을 주도한 Jean-Paul Gaultier도 Infra Fashion을 High Fashion에 도입하였다. 80년대 Corset을 겉옷에 도입한 가수 마돈나(Madonna)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Feminism적인 경향으로 여성적인 미를 표현하기 위한 Infra Fashion이 자주 보여지기도 한다.

Vivienne Westwood 작품에서 보여지는 Infra Fashion을 역사적 절충주의와 맞물려 보여지는 Corset 디자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매년 Collection마다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은 Corset으로써 Harris Tweed Collection 이후 단순한 디자인으로 등장하거나 18세기 문양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하거나 또는 그림이 프린트되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상황적 절충주의와 함께 역사적 절충주의도 보여지는 다원적 절충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 Corset의 사용으로 때로는 색시하게 때로는 핑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고 때로는 발랄하게 표현하였다(그림 13). 이는 속옷의 겉옷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Camisol Look이 더욱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Corset을 응용한 디자인은 속옷의 겉옷화 현상에서 자주 엿보이는 현대적인 애로틱한 분위기보다 역사적인 퇴폐성을 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4, 15>에서 보여지는 Corset은 Renaissance 시대 이후부터 꾸준히 보여진 Corset의 역사성을 배제하지 않고, 그녀만의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영국의 패션에서 보여지는 전통성과 파괴성이 공존하는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로 해석



<그림 13> '97 S/S. Red Label.



<그림 14> '97 S/S. Red Label.



<그림 15> '98 S/S. Tied to the Mast.



<그림 16> '02 A/W. Anglo-philosophia.

되어진다. 또한 최근의 컬렉션에서도 코트셋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6).

V. 결 론

오늘날 모든 문화는 문명의 세계화에 따라 그 문화의 차이, 다양성, 다원주의에 의해 절충주의적 형식을 띠고 있으며 혼혈적이고 다층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의거하여 다원적 절충주의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근거로 살펴보았으며 복식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를 사례연구를 통해 고찰하였다. 또한 절충주의의 선례적인 디자이너인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통

해 다원적 절충주의적 경향을 분석해 보았다.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예술 양식으로 등장한 Post-modernism 문화는 이전의 대중 문화인 하위 문화 패션과 Haute Couture Fashion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Post-modernism 특성은 절충주의(Eclecticism)와 다원주의(Pluralism)적인 경향을 띄면서 새로운 패션 문화를 만들어 내었으며, 주류인 일반 스타일과 비주류인 다양한 스타일 간의 해체 및 혼합·절충적 양식의 다원성에 의해서 한 단계 발전된 형식으로 바뀌어 다원적 절충주의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영국의 전통을 현대화하는 다원적 절충주의 경향을 파격적으로 표현한 Vivienne Westwood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경향에서 드러나는 다원적 절충주의의 선도적인 의의를 입증하였다.

Vivienne Westwood의 작품에 나타난 작품 경향과 조형적 요소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핑크를 바탕으로 한 사회경향에 이끌려가는 디자인을 선보이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사적인 모티브를 디자인에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절충주의를 충실히 보여주었다. 주로 역사적 양식에서 오는 Fit and Flare 실루엣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적인 전통성을 가진 색채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재에서도 특별한 소재를 개발하기 보다는 영국의 전통적인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영국 섬유 산업에 어바지하기도 하였으며, 스트라이프와 체크 패턴을 다양하고 화려하게 이용함으로써 영국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렇듯 Vivienne Westwood는 초기에는 영국 하위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핑크를 이끌었으며 80년대 이후 역사적 절충주의 의상에서는 역사적 모티브를 다양하게 재해석하였다. 최근 보여지는 그녀의 의상은 영국의 전통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절충주의적인 경향을 함께 보이고 있다.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를 사례 연구에서와 같이 시간적 절충주의, 공간적 절충주의, 상황적 절충주의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시간적 절충주의는 80년대 초반 역사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여기에 영국적인 전통적인 소재와 색채를 사용함으

로써 역사적 요소를 화려하게 재해석하였다. 공간적 절충주의는 다양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초기 몇몇 Collection에서 그녀 역시 다른 문화에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보여진다.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상황적 절충주의는 시간적 절충주의와 그 맥을 함께 하는데 이는 그녀가 Corset을 즐겨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Corset이라는 역사적 속옷이 Collection에서 겹옷으로 등장하며 동시에 역사적인 요소를 절충한 다원적 절충주의의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을 한 가지 부류로 나누기는 힘들다. 이는 그녀가 그만큼 다양한 작품 활동을 전개해 왔음을 의미하며 여러 시대를 넘나들고 여러 문화를 가로지르는 다원성을 보이고 있게 때문이다. Vivienne Westwood는 영국에서 파격적으로 자라난 Punk라는 사회적 조류와의 절충, 그리고 시대를 넘나드는 역사와의 절충, 또한 자국의 문화와 다른 요소와의 절충 등을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한 디자이너이다.

21세기 전환 시대에는 모든 시각적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이미지의 해체와 절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충에 대한 분류는 21세기 전환기 패션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보여지는 다원적 절충주의 패션의 특징은 Post-modernism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다원성과 절충성이 각 특성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탈 장르, 탈 경계, 탈 중심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은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의의는 최근 패션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원적 절충주의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 및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병행했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절충주의에 관한 연구는 문헌고찰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병행 시도함으로써 다원적 절충주의의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Vivienne Westwood 작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은 향후 후속 연구의 기반으로 예상됨으로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 분석을 병행한 연구를 토대로 Vivienne Westwood 작품에 나타난 다원적 절충주의 고찰을 시도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건축이나 철학, 대중 매체 등 포괄적인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를 다루지 않고 패션에 국한된 다원적 절충주의를 고찰하였다. 또한 시간적 절충주의 경향을 보이는 디자이너나 공간적 절충주의, 상황적 절충주의를 디자인 요소를 하는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최근 패션은 여성과 남성의 구분야 점차 사라짐으로서 그 경계 역시 절충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또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문헌 고찰뿐만 아니라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시도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단행본〉
- 김민자 (2004). *복식미를 보는 시각복식미학 강의 1*. 서울: 교문사.
- 김민자 (2004). *복식미 엿보기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 김옥동 (1995).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 정홍숙 (2002).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 프랑소와 보도 지음, 박기완 옮김 (2002). *세계유명 패션 디자이너 시리즈 I; Christian Lacroix*. 서울: 노라노.
- 현대 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2002). *현대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 Boucher Francoise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Abrams.
- Collince Piter, 이정수 역 (1989).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서울: 태림문화사.
- Krell Gene (1997). *Vivienne Westwood*. London: Thames and Hudson.
- Kyoto Costumes Institution (2002). *Fashion*. Köln: TASCHEN.
- Laver James (1993). *Historie De La Mode Et du Costume*. London: Thames and Hudson.
- Martin Richard and Koda Harold (1989). *The historical mode*. New York: Rizzoli.
- Selling Charlette (1999).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Könemann.
- Tortota Phyllis and Eubank Keith (1994). *Historic costume. 2nd edition*. New York: Fairchild.
- Valerie Mendes and Amy de la Haye, 김정은 옮김 (2002). *20th Century Fashion*. 서울: 시공사.
- Wilcox Clair (2004). *Vivienne westwood*. London: V&A Publications.
- 〈논문〉
- 권자영 (2000). “현대 영국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현 (2002). “크로스오버 디자인 연구-확대와 과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II)-반미학과 열린 패션을 중심으로-.” *복식 38권*.
- 김민정 (1995). “20세기 말 패션에 나타난 Cross 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후란, 은영자 (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Retro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권 2호*.
- 나현신 (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19C와 20C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현신, 전해정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주의에 관한 연구-비비안 웨스트우드와 크리스찬 라크로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4호*.
- 박윤정, 양숙희 (2000). “세기말에 나타난 역사주의 의상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8권 1호*.
- 박혜원, 이미숙 (2002). “레트로(Retro)패션의 특성과 문화 산업적 의미 연구.” *복식 52권 3호*.
- 안광숙 (2004). “복식에 표현된 복고 경향-19세기와 20세기 여성복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희영 (1998).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양식-Andy Warhol Look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혜 (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 현상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을 중

- 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정희 (2002). “스타워즈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의 영화의상에 표현된 절충주의(Eclecticism)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덕 (200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상준 (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 문화* 43호.
- 정지현 (1993). “Post-modernism에 의한 패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현 (2003). “복식에 표현된 숭고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정 (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권 3호.
- <기타>
- Gap press, Vol. 15 '98 '99 A/W.
COLLEZIONI DONNA, 1999/2000 A/W.
Gap press, Vol. 22 '99 '00 A/W.
Gap press, Vol. 26 '00 S/S.
Gap press, Vol. 30 '00 '01 A/W.
Gap press, Vol. 34 '01 S/S.
Gap press, Vol. 38 '01 '02 A/W.
Gap press, Vol. 46 '02 '03 A/W.
Gap press, Vol. 48 '03 S/S.
Fem collections, Vol. 10 '04 S/S.
www.samsungdesign.net
www.style.com
www.firstview.com
www.viviennewestwood.com
<http://cafe.naver.com/myviviennewestwood>